

## 8,9월 인성 교육 자료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

8월 29일

### 직업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정재민, 카이스트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

연구년을 맞아 캐나다에 와 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한국에서 병원 문 앞에만 가도 울고 의사를 만나면 아예 자지러지던 아이가 막상 이곳에서 의사를 만나자 순한 양이 되었다. 외국인 의사는 비현실적일 만큼 친절하고 자상했다.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의사가 제 직업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듣고 보니 그렇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친절하고 진료가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인다.

집 앞 건너편에서는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아이가 구경하고 싶어해서 매일 공사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캐나다에서는 6개월 과정의 기술인력 양성 학원에서도 첫 주에는 반드시 직업윤리 교육이 실시된다고 한다. 내가 부주의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기준에 못 미치는 저가의 불량 자재를 썼을 때 어떤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캐나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접하는 사람들에게서 직업윤리의 실천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다. 기자에게도 직업윤리가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기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언론자유 수호, 공정정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취재원 보호, 오보의 정정, 갈등·차별 조장 금지, 광고·판매활동의 제한이 그것이다. 기자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받아쓰기, 베끼기, 오보, 작문,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지 싶다.

날조된 기사의 또 다른 사례로 1980년 워싱턴 포스트 자넷 쿡 기자의 ‘지미의 세계’가 떠오른다. 헤로인에 중독된 8살 소년 ‘지미’를 통해 청소년의 마약중독 실태를 다뤄 풀리처상까지 받았지만 ‘지미’는 허구의 인물이었다. 풀리처상은 취소됐고 자넷 쿡도 해고됐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기자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릴 유혹이 더 커질지 모른다.

기자협회보 2013년 11월 6일자 중 일부

#### ※ 생각해보기

1. ‘직업윤리’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5개 이상 생각해보세요.
2. 위에 생각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직업윤리의 개념을 말해보세요.
3. 위에서 말한 직업윤리 개념이 미래에 나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세요.